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 | | | |
|------|----------|------|---------------------------|
| 이름 | 김성* | 학번 | |
| 파견국가 | 필리핀 | 파견도시 | 수빅 |
| 파견대학 | 필리핀대학마닐라 | 기간 | 2017. 6. 17(토) ~ 7. 15(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빅에 있는 필리핀대학 마닐라 소속 Times-SLC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시설은 에어컨도 있고 좋았지만 와이파이를 너무 제한적으로 해놔서 이용하기 불편하였습니다.</p> |
| 수업 |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그룹 수업과 일대일 수업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하루에 4번의 그룹수업과 4번의 일대일 수업이 있었는데 그룹 수업 중 토익스피킹 수업이 가장 맘에 들었습니다. 토익스피킹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저는 대부분 만족하였지만 한두명의 선생님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압박을 주면서 수업을 진행하셔서 아쉬웠습니다. 제가 문장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말을 더듬으면서 하나씩 생각해내고 있는데 답답했는지 선생님이 혼자서 문장을 만들어주셨고 저는 뭔지도 모르는데 넘어가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업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진행 될 필요성이 있나 싶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시간을 길게해서 수업 수를 줄이는게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는 오전수업에 밥을 먹고 나서 오후수업까지 총 8번의 수업을 듣는 내내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필리핀 현지선생님들은 모두 착하고 친절했지만 그들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도중에 필리핀 현지어를 쓰는 선생님들도 많아서 중간중간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룹별로 뮤직비디오와 씨에프를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고 시청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많이 웃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p> |

| | |
|----------|--|
| Activity |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
| | Anvaya Cove 리조트 : 입장료 무료, 식비 700페소 정도 부담, 수영장 및 시설 이용 요트 체험 : 무료, 요트 체험 및 다이빙 경험 마닐라 투어 : 무료, 현지 마닐라대학 학생과 교류, 국립박물관 견학 마사지 체험 : 300페소가량, 현지 마사지 체험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현지 기후는 정말 습하고 덥습니다. 밤에도 정말 습합니다. 또한 비도 많이 옵니다. 비 올 때는 한 번에 정말 많이 와서 돌아다니기 힘듭니다. |
| 안전 | 현지 안전 상황 필리핀은 특이하게도 건물마다 보안요원이 있고 입구마다 보안경찰이 있어서 가방이랑 소지품등을 검사합니다. 또한 위험한 도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안보였고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안전했습니다. 현지사람들도 외국인들에게 정말 친절했습니다. |
| 숙소 | 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숙소 시설은 대체적으로 좋았고 빨래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또한 에어컨이 있어서 덥지않게 지낼수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언제나 먼저 인사해주셔서 밝았으며 한국 학생들끼리도 다 친해져서 재밌게 생활했습니다. |
| 식사 | 학교식당(<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주로 숙소 식당을 이용하였으나 현지 필리핀 밥이 제 입맛에 맞지 않아 나가서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버포인트나 수빅베이 근처 식당을 이용하였고 현지 한식당도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
| 교통 |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주로 FIB나 지프니 택시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택시비용도 싸고 필리핀은 교통비가 정말 쌌습니다. 그래서 무리없이 편하게 이용하고 다녔습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 726,000 | 출국 전 사전 납부 |
| 병원비, 약값 | 45,000 | |
| 현지 공항 이용료 | 12,000 | |
| 개인 경비 | 400,000 | |
| 합계 | 457,000 |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출국 전에 반드시 비상약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학생들은 현지 음식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단체로 박테리아에 감염되어서 물갈이를 하는 친구들도 저를 포함해서 많았습니다. 또한 필리핀 현지 기후가 시도때도 없이 변화해서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밖은 덥고 안은 에어컨 때문에 춥기 때문에 감기약은 반드시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현지 숙소에서 약을 제공해주기도 하는데 사무실 찾아가 약을 받아오기 번거롭기 때문에 개인약들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현지 병원은 약받기 정말 힘들고 또한 엄청 비쌉니다. 아프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물을 꼭 사서 마시세요. 물갈이로 고생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겁니다. 또한 수영복을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지에서 숙소안이나 밖에서 수영장에 가거나 바다에 들어갈 일이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수영복 하나 장만해서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옷은 현지 옷이 싸긴 하나 브랜드별로 한국과 별 차이없는 곳도 많습니다. 현지에서 옷을 사는건 가급적이면 추천드리지 않으며 한국에서 준비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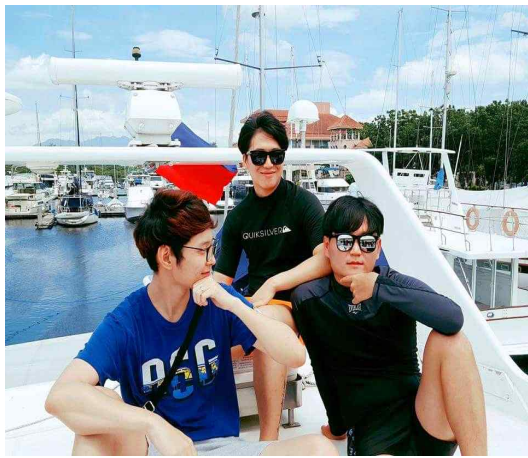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이번에 필리핀 단기어학연수를 가면서 해외에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 한국과 다른 환경 때문에 고생도 많이하고 한국이 많이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간 한국 친구들과 많이 친해지고 재밌게 지내다 보니 금세 시간도 지나고 현지에 적응해서 나중에

는 정말 원래 알던 동네처럼 돌아다녔습니다. 필리핀 현지 쌀밥이 저랑 맞지 않아서 살
도 많이 빠지고 밥도 제대로 많이 못먹었습니다. 나중에 필리핀 현지 한식당을 자주 이
용하게 될 정도로 저는 현지 음식 적응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들을 빼고서
는 값진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수빅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필리핀
을 제대로 경험하고 필리핀 가게에 들어가서 영어로 물어보고 물건을 구매하고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나는 이상한 기름 냄새 때문에 많이 힘들
긴 했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서 쇼핑하거나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데 힘들지 않았
습니다. 영어 수업관련해서도 현지 선생님들도 영어를 많이 알려주려 하시고 문법도 많
이 신경써주시고 저희가 제대로 말을 못해도 잘 알아들으셔서 의사소통에는 크게 문제
가 없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한국인이라는게 자랑
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드라마나 예능 덕분에 한국인들을 정말 좋아한다고
사전에 알았는데 정말 가보니 저희를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같이
사진을 찍자는 사람들도 있어서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경험은 때론 신기하기도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것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소중한 추억인 것 같아서 힘든 추억들 까지도 고이 간
직하려 합니다. 같이 간 순천향대 학생들끼리 정말 많이 친해져 나중에 헤어지는게 아쉬
울 정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한달이라는 시간이 저에겐 정말 값지고 행복했던 순간
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 | |
|---|--|
|  |  |
| <p>첫날 갔었던 수빅 투어(수빅베이)</p> | <p>첫째 주 토요일날 갔었던 안바야 코브 리조트</p> |



친구들과 함께 갔었던 요트 체험



친구들과 함께 갔었던 현지 식당
(코코라임)



졸업식날 현지 담임선생님 ACE와
함께



마지막날 필리핀 공항에서 찍은
단체사진